

이야기꽃 그림책 신문

제3호 -《수박이 먹고 싶으면》편

펴낸 날 2020년 6월 22일 | 펴낸 곳 이야기꽃출판사 · 서울 마포구 연남로13길 17 | 펴낸이 김장성 | 전화 070-8797-1656 | 전송 02-6499-1657 | 이메일 iyagikot@naver.com | 홈페이지 iyagikot.com



수박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얼 그리 뚫어져라 보고 있냐고? 수박! 정확하게는 어린 수박. 나는 지금 수박이 먹고 싶거든. 그런데... 아직은 먹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너무 작고, 먹어 봐야 맛도 없어. 아무리 내가 강아지라도 그 정도는 알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야 물론 기다려야지. 수박이 익을 때까지. 얼마나? 음... 잠깐만, 이 신문의 다음 장을 보고 올게. 거기에 얼마나 걸리는지 나와 있거든.

45일! 꽃가루받이가 된 뒤 약 45일 뒤면 완전히 익는대. 지금 달걀만 한 저 수박은 꽃가루받이하고 5일쯤 지난 거라니까, 40일 뒤엔 먹을 수 있겠다.

어떤 과일이든 다 그렇듯 수박도 완전히 익어야 맛있겠지. 모든 일이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 무언가를 하려면 우선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마음만 앞서서는 그르치기 십상이지. 그것을 경계하는 옛날 이야기도 있어. 한번 들어볼래? 강아지가 별 길 다 안

다고? ㅎㅎ 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잖아. 내가 이래봐도 농부 개 석 달. 농부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얘기해 주는 걸 들은 적 있거든. 그러니 들어봐. 석 달짜리 강아지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옛날에 어떤 농부가 봄이 되어 논에다 벼모를 심었대. 그러고는 논두렁에 쭈그러 앉아 논을 보고 있더니 문득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저 아기 손가락만한 벼가 언제 자라 이삭을 주렁주렁 매달꼬?’ 한참 생각하다, “웁거니!” 무릎을 쳤지. 성큼성큼 논으로 들어가 어린 벼모를 조금씩 위로 뽑아 올렸어. 다 해 놓고 다시 바라보니 그새 벼모가 꽤나 자라 있거든. ‘날마다 이렇게 하면 보름 뒤엔 햅쌀밥을 먹게 될 테지!’ 흥얼흥얼 집으로 돌아와 자랑스레 말했지. “내가 벼를 한 치씩이나 키워 놓고 왔더니 몹시 피곤하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나 싶어 자식들이 급히 논으로 달려갔지. 아니나 다를까, 뿌리

가 들린 벼모들이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었다지. 그해 농사는 다 망친 거지 뭐.

이 농부처럼 하는 일을 ‘조장’이라고 해. ‘도을 조’에 ‘길 장’長, 어떤 일을 일부러 부추겨서 잘못되도록 만든다는 뜻이지. 논이 벼모를 조장하든 친구 사이에 다툼을 조장하든, 조장은 참 어리석은 일이지? 그래서 내가 등장하는 그림책 《수박이 먹고 싶으면》에도 이렇게 쓰여 있나 봐. “수박이 먹고 싶으면 기다려야 한다... 줄무늬 토끼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덩굴손 마를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꽃자리 우묵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중지 마디로 통통 두드려 맑은 소리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그래. 수박을 맛있게 먹고 싶으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런데, 맛있는 수박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또 있대. 그게 뭐냐고? 다음 장을 펼쳐 봐.

강아지 기자 · iyagikot@naver.com

외면해선 안 될 이상한 하늘 이야기



우리, 함께 하늘을 보아요. 무엇이 있나요?
새, 비행기, 구름, 해, 노을, 달과 별...
거기 있어서 좋은 것들, 거기 있어야 하는 것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거기 있는 걸까요?

하늘에
김장성 글, 우영 그림 | 양장 36쪽 | 205*264mm | 책값 : 13000원

이야기꽃출판사 서울 마포구 연남로13길 17 | 전화 070-8797-1657 | 전송 02-6499-1657 | 이메일 iyagikot@naver.com | 홈페이지 www.iyagikot.com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수박 이야기

아삭아삭! 수박의 달고 시원한 비밀

평소 대수롭지 않아 보이던 것이, 잘 알고 나니 특별해 보인 적 있지 않아? 그저 그런 반 친구가 리코더 신동이었던가, 부스스한 머리에 쓰레빠 끌고 다니는 옆집 형아가 만렙 찍는 게임 왕이었다든가 하는 걸 알고 나면 아 마 훨씬 멋져 보일 거야. 만날 먹는 김치나 된장찌개가 발효과학의 지혜가 깃든 건강식품이란 걸 알고 나면 더 귀하고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 수박도 그럴 거야. 수박이 지닌 특별한 사실, 한번 알아볼까? 알고 먹으면 더 맛있을 테니까.

1.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왔다고?

수박의 고향은 남아프리카의 초원지대래. 4,000년 전쯤부터 이집트에서 재배하기 시작했고, 7세기쯤 인도로, 10세기쯤 중국으로 전파된 뒤 17세기쯤까지 아시아와 유럽 전역으로 퍼진 듯 보인다지.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이 쓴 음식 이야기 책 《도문대작》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원나라에 귀화해 고려인을 괴롭혔던 홍다구(1244~1291)라는 사람이 개성예다 처음 수박을 심었다고 해.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성까지 이동경로는 약 2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수박을 먹는 건 몇 천 년 동안 지구 반 바퀴를 여행한 과일일 먹는 거야.



2. 임금의 수박을 훔친 죄값은?

조선왕조실록에는 1423년(세종 5년) 10월 8일 자에 처음 수박이 등장하는데, 내용이… “주방 관리를 맡은 환관 한문직이 수박을 훔쳤으므로 곤장 100대를 치고 영덕으로 귀양을 보냈다.” 물론 도둑질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하지만 수박 한 통 훔친 죄값치곤 너무 혹독하지? 수박이 그만큼 귀하기도 했겠지만 아마 임금이 먹을 걸 훔쳤다는 패씹죄가 더 컸을 거야. 그런데 한문직 씨는 대체 왜 그랬을까? 실록에 ‘범행동기’는 안 쓰여 있어. 그런데 혹시라도 병든 어머니가 드시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면? 세종대왕이 좀 봐줄 수도 있었을까?

3. 수박꽃의 꽃말은 무엇일까?

‘꽃말’ 알지? 장미는 사랑. 토끼풀은 행복, 민들레는 감사… 그럼 한문직 씨가 곤장 100대와 맞아본 수박의 꽃은 어떤 꽃말을 갖고 있을까? 수박이 어떤 과일인가를 생각해 봐. 아마 과일 중에선 제일 덩치가 클 걸? 그러니 혼자 먹을 순 없지. 그림책 속 농부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과 나눠먹어야 제격. 그렇게 나눠 먹는 마음은 작은 마음이 아닐 거야. 그래, 수박꽃의 꽃말은 ‘커다란 마음!’

왼쪽이 암꽃, 오른쪽은 수꽃. 암꽃은 수박열매를 달고 피어나는데 꽃가루받이가 되지 않으면 곧 떨어져 버리지요. 꽃가루받이를 하고 45일 쯤 지나면 수박을 먹을 수 있게 되어요.



4. 신사임당이 수박을 그린 까닭

아래 그림은 조선의 화가 신사임당이 그렸다고 전하는 <들쥐와 수박>이야. 큰 수박 두 개와 작은 수박 한 개가 달린 수박넝쿨과 들쥐 두 마리가 그려져 있어. 옆에는 패랭이꽃, 위에는 나비 두 마리. 이처럼 풀과 곤충을 그린 옛 그림을 ‘초충도’라 해. 예그, 그런데 들쥐들이 가장 큰 수박을 파먹고 있네. 이 녀석들도 곤장을 치고 귀양을 보내야 할까? 초충도를 비롯한 옛 그림들은 대개 어떤 뜻을 담고 있어. 이 그림은 어떨까? 나비는 ‘장수(오래 살)’를, 패랭이꽃은 ‘젊음’을 뜻한대. 그럼 수박은? 자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지. 씨가 많은 수박처럼 말이야. 그렇다면 들쥐 두 마리를 귀양 보낼 일은 아니겠지? 녀석들 덕분에 가지런히 박혀 있는 수박씨가 잘 보이니까. 아,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 수박의 모양. 오늘날의 것과는 많이 다르지? 16세기 조선시대에 강원도에서 기르던 수박의 모습일 거야. 신사임당은 1504년에 태어나 1551년까지 살았는데, 그중 37년을 강원도 강릉에서 지냈으니까.

수박 그림은 ‘책가도’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 책가도는 책장과 책을 그린 장식그림인데, 역시 자손이 번성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수박이나 여주처럼 씨가 많은 과일을 함께 그려 넣지. 옆 그림 속 책장에서 수박을 찾아볼까?



왼쪽, 신사임당이 그렸다고 전하는 초충도 <들쥐와 수박>. 국립중앙박물관 오른쪽, <책가도 8쪽 액자>중 제6쪽, 국립민속박물관

5. 수박 씨? 수박 시!

수박씨를 뺄을 땀	
수박을 먹고	
수박씨를 뺄을 땀	
침처럼 드럽게	
땀, 하고 뺄지 말자	
수박을 먹고	
수박씨를 뺄을 땀	
달고	
시원하게	
땀, 하고 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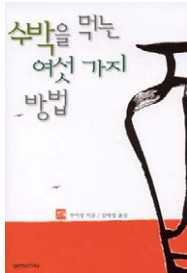
송찬호 시인이 쓴 동시야. 어때? 나는 이 시를 읽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는데. 한여름 땀마루에 걸터앉아 다리를 흔들거리며 수박을 먹는 개구쟁이 두 녀석의 모습에 그려져서 말이야. 수박씨 멀리 뺄기 내기를 하는 모습도 떠오르고. 웬지 수박씨를 땀! 하고 뺄으면 진짜로 수박이 더 달고 시원할 것 같지 않아? 이처럼 문학과 예술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생활 속의 느낌과 생각들을 록 집어내어 생생하게 되살려 주지. 그럼, 수박을 소재로 한 문학예술 작품들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앞에서 살펴본 그림들도 그렇고, 그림책 《수박이 먹고 싶으면》도 그런 거겠지? 《벌거벗은 수박 도둑》이라는 수필집도 있고, 아, 가수 강산에가 부른 노래 <할아버지와 수박>도 있구나! 그밖에 또 무엇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자.



송찬호 시인의 동시집 《저녁별》

6. 수박을 먹는 여섯 가지 방법?

음… 내가 알고 있는 ‘수박 시’ 중에 아주 심오한 게 하나 있는데 한번 소개해 볼까? 대만 시인 루어칭의 <수박을 먹는 여섯 가지 방법>인데, 좀 기니까 내용만 간단히 말할게. 시인은 수박 먹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역순으로 제시하고 있어. 다섯째-수박의 혈통을 생각하기, 넷째-수박의 출생지를 생각하기, 셋째-수박의 철학을 생각하기, 둘째-수박의 영역을 생각하기, 첫째-먹고 나서 얘기하기. ㅎㅎ 뭘 말이래? 그런데 어째서 다섯 가지만 있을까? 제목은 분명 <수박을 먹는 여섯 가지 방법>인데. 바로 그게 이시가 말하려는 진짜 뜻이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저마다의 방법! 그래서 여섯 번째는 독자가 채우라는.



루어칭의 시집 《수박을 먹는 여섯 가지 방법》

강아지 기자 · iyagikot@naver.com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그림책 이야기

누가 수박 속에 달콤한 속살을 채워 넣었을까?



더운 여름날, 시원한 수박이 먹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수박을 사먹으면 되지요. 그런데, 그 수박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저마다 제 손으로 만들어 쓰지는 않습니다. 나누어 생산하는 ‘분업’이라는 방법과, 바꾸어 쓸 수 있게 해 주는 ‘화폐’라는 수단이 있으니까요. 분업과 화폐는 우리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 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것들을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정성이 들어가는지를 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종종 일하는 사람과 수고하는 과정 없이, ‘화폐-돈’이라는 수단만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 그림책은 우리가 쉽게 사먹는 수박을 얻기 위해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책 속의 농부는 이른 봄 쟁기질로 밭을 깨우고도 겨울이 완전히 물러가기를 기다렸다가, 살구꽃 필 무렵에 구덩이를 파고 퇴비와 참흙을 커켜이 채운 뒤 수박씨 서너 개를 뿌립니다. 그러고는 날마다 촉촉이 물을 주지요. 이윽고 싹이 나면 그중 싹한 놈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솥아 냅니다. 그리고 남은 싹이 줄기를 뻗고 꽃을 내고 열매를 맺도록, 날마다 밭을 드나들며 열심히 보살핍니다. 뿌리가 숨을 쉬도록 복을 돌우고, 뻗어가는 줄기가 움켜쥐라고 빗질을 고루 깔아 주며, 줄기가 힘을 모으게 결순을 따내어 주고, 꽃가루받이하는 벌 나비가 모여들도록 꿀임없이 나는 잡풀과 자꾸 생겨나는 진딧물을 일일이 손으로 뽑고 훑어 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그저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 뿌리고 흙 덮어주며 잘 자라라고 조용조용 읊조려 주고, 날마다 물을 주며 정성을 쏟되, 수박 싹 제가 절로 난 줄 알도록 무심한 듯 모른 척해 주기도 합니다. 떡잎이 고개를 내밀면 아이처럼 기뻐해 주고, 싹을 솥아 낼 땐 안타까워하며, 그런 만큼 남은 싹에 더욱 정성을 쏟아 줍니다. 그렇다고 마냥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다가도 너무 지치거나 더위를 먹지 않도록 가끔 원두막에 올라 시원한 미숫가루 물도 마시고 낮잠도 한 숨 잘 자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농부는 수박이 익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산짐승과 동네 꼬맹이들이 설익은 몇 덩이를 훔쳐가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농부는 그도 자연스런 과정이려니 생각해두고 서운해하거나 성내지 않습니다. 조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 농부는 그 때를 기다립니다. 줄무늬 또렷해지고 덩굴손 마르고 꽃자리 우묵해지고, 통통 두드려 좋은 소리 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게 영글대로 영근 수박이 이윽고 몸뚱이를 뒤적인다 싶을 때, 농부는 성큼성큼 밭으로 들어가 그놈을 푹 따내는 것입니다. 이제 수박을 맛볼 차례. 농부는 손을 저어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이! 이리들 오소!” 수박 먹고 싶은 이는 누구든, 엇그제 다툼 사이도 지나가는 길손도 반가이 불러 불러앉힙니다. 혼자만 먹는다면 그 고된 나날들이 얼마나 보람되려 싶은 게지요. 그 마음이 수박의 마음마저 열게 합니다. 칼도 닿기 전에 찹! 제 몸을 열어 단물이 흐르는 속살을 아낌없이 내어주게 합니다. 땀과 정성 쏟아낸 한 시절을 고스란히 돌려주게 합니다.

수박이 먹고 싶다고 모든 사람이 농부처럼 수박을 심고 가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박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마음까지 쏟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맡은 역할이 수박농사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때에 맞춰 수박을 길러야겠지요.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책 속의 농부처럼 땀 흘리고 마음 쏟으며 정성껏 일할 줄 알고, 나누어 넉넉히 보람 키울 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야 나와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즐거워질 테니까요. 다른 일로 돈을 벌어 수박을 사먹는 사람이라도, 수박을 먹으며 그 달고 시원한 속살이 어떻게 차올랐는지, 거기에 누가 어떤 수고와 정성을 담았는지를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저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서로를 더 고마워하며 더 귀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수단이 아니라 아름다운 과정을 위해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강장성 기자 · moo wee1@naver.com

그림 작가 유리 인터뷰

“도자기처럼 단단한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요.”

*이 기사는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 2019년 여름호의 김지은 그림책 평론가와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것입니다.

김지은(이하 '김'): 지금까지 출간된 그림책 세 권이 모두 인상적이었는데,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그림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유리(이하 '유'): 원래는 도자 공예를 전공했습니다. 영국에 놀러 갔을 때 굉장히 큰 서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어린이 책 코너와 천장까지 가득 차 있는 그림책을 본 건 태어나 처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로베르토 인노첸티가 그림을 그린 《피노키오의 모험》을 만났습니다. 처음 본 순간, '그림이 이럴 수가 있구나. 그림으로 세계를 만들어 이렇게 책에 담을 수 있구나.' 알게 되었고, 언젠가는 책과 그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몇 년 뒤 그림책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 첫 작품이 《돼지 이야기》지요. 2010년 구제역 파동 때 처음 생각하게 된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그 때 일은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이제 그림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돼지 이야기》가 출간되었을 때도 펼쳐볼 엄두가 안 났고요. '작가는 그걸 어떻게 돌파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경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작업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나요?

유: 실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자료 조사가 중요했습니다. 관련 기사와 동물보호단체 인터뷰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자료 조사를 하면서 참혹한 사진들을 많이 볼 때 특히 힘들었습니다. 살처분 영상을 보며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그림 작업 재료도 건식, 흑백 재료만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동안 몸과 마음이 회색빛이었습니다. 자료 조사 과정도 힘들었지만, 처음 그림책 작업을 하면서 느낀 당혹감도 있었습니다. '머릿속의 이미지'와 '내가 그려낸 결과물'의 차이가(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지만)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계속 수정하고 그려 보면서 이겨낸 것 같습니다.

김: 제가 이 작품을 보며 놀랐던 건 가장 폭력적이고 잔혹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가장 평화로운 공간에 담아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살처분 사건은 빠르고 격렬한 인간성 추락의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돼지'를 다룬다고 하면 돼지를 대상화해서 연민이나 미안함을 담은 작품이 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돼지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고,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인간의 존재가 낙하하는 걸 보여주는 서사라 느꼈어요. 굉장히 '돼지적인 이야기'라고 할까요?(웃음) 돼지의 표정이라든가 몸의 각도 등도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주인공 돼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던 모델이 있었나요?

유: 정해진 한 마리의 모델은 없었습니다. 엄마 돼지 한 마리를 만들었죠. 이 책이 글은 객관적이지만 그림에서는 주인공 돼지 한 마리를 정해서 돼지가 살고 있는 환경도 보여주고, 마지막까지 엄마 돼지의 시선, 감정선을 쫓 끌고 가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표지의 돼지가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었던 건 그날이 처음 외출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김: 소를 키우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풍경이 작업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유: 그림책 세 권에 모두 영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우 목장을 운영하셨는데, 방목형 초록색 들판이었어요. 산 한쪽에 울타리를 쳐서 소들이 반 야생으로 살아가는 상태였죠. 학교에 다녀오면 함께 놀 사람이 오빠나 동물들이었고, 식구들이 동물을 다루는 모습이나 식물을 키우는 모습을 보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김: 자라난 환경 속에서 경험했던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다음 작품이었던 《대추 한 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추 한 알> 시를 보셨을 때 대추를 쉽게 그릴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바로 하셨나요?

유: 네(웃음)

김: 실제 그리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유: 그림을 그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제가 고정관념을 참 많이 가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냥 동그란 열매, 타원형 나뭇잎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대추나무는 봄부터 가을까지 얼마아한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나무 하나를 정해 일 년 동안 촬영을 쫓 했는데, 변화 과정을 보며 많이 배웠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나무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무의 변화무쌍함을 이 책에 어떻게 담아야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한 대추나무의 일 년, 한 가족의 일 년, 사계절 변화 등의 이야기가 쫓 이어지는데 그것들을 한 화면에 어떻게 담아서 연결할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 《대추 한 알》의 내용을 보면, 장면마다 그 계절에 살아있는 것들이 많이 보여 재미있었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미세한 생물들도 잘 포착해서 극사실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원래 관찰을 잘 하시나요?

유: 《대추 한 알》에는 제 어린 시절을 많이 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지내다보니 그 시기에 피는 꽃이나 곤충들이 자연스럽게 책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로 관찰을 하기보다는 당연히 그 시기에 있어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넣게 된 것 같아요.

김: 《수박이 먹고 싶으면》에서는 새로운 그림 서사가 등장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 이 원고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유: 우선 글을 읽으며 수박의 성장과정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올랐고요(웃음), 《대추 한 알》이 대추나무의 1년을 담고 있다면, 수박의 성장은 봄에서 여름 몇 개월이어서 사실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글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도 있었지만 자연물을 한번 더 해보고 싶기도 했고, 그림에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김: 《수박이 먹고 싶으면》을 읽다 보니 화자를 누구로 보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수박을 키우는 할아버지의 손, 강아지, 수박의 시점으로 볼 때마다 그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 유리 작가 그림이 좋은 점은, 생명체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주고받는 대등한 위치로 등장한다는 것입

니다. 세 권의 책에서 살아있는 것들을 다루며 특별하게 느낀 점이 있나요?

유: 《돼지 이야기》《대추 한 알》을 할 때는 나의 어린 시절 경험에 너무 얽매어 있는 건 아닌가 마음 한 편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까지 작업을 한 후에는 100% 나의 경험 속에서 끄집어내 그릴 수 있는 게 있어서, 오히려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에 대해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까요.

김: 경험이 가진 의미나 가치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군요. 작가로서 중요한 깨달음일 것 같습니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수박을 먹는 장면은 그야말로 절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장면을 구성할 때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유: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드론'의 시점으로 여기저기에서 광장처럼 모이는 걸 구성했는데, 조금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공간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김: 그래서 그런지, 이 장면의 인물들이 그냥 수박을 먹는 게 아니라 각자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태권도복을 입고 자세를 잡기도 하고, 숭바꼭질을 하거나, 춤을 추기도 하고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고구마와 옥수수를 들고 오는 남녀인데 신체가 매우 사실적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만난 것 같고, 친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는 독자들이 단순히 즐거리만 보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김: 앞으로의 작업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싶으신가요?

유: 제가 도자공예를 전공해서 그런지 작업을 하면서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도자기 작업을 할 때 적당한 습도의 흙을 두드리면 모양이 잘 잡히고 단단해지거든요. 그림책 작업 과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단단한 그림책을 만드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하나의 공예품 같았으면 좋겠어요. 보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독자 입장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욕구가 드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돼지, 대추, 수박을 거쳐 더 우리 가까이 의 문제들을 면밀한 시선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어 : 그림책평론가 김지은, 정리 : 이예지

유리 작가의 작품들



돼지 이야기
2013.11



대추 한 알
2015.10



수박이 먹고 싶으면
2017.08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이야기꽃 그림책을 볼 수 있어요.